



선수 인생 2막 준비
축구 국가대표 캡틴
박지성

“유소년 유망주들과 함께하는게 꿈 결혼? 이해심 많은 여성 기다려요”

요즘한 가수 고(故) 김광석은 자신의 히트곡 '서른 즈음에'에서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노랫말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인생의 두려움과 설렘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원동력이 됐던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1981년 2월생이다. 만으로 29살이지만 한국 나이로는 어느새 30살이 됐다. 말 그대로 '서른 즈음에'의 인생 고개를 넘는 순간이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헤엄같이 등장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25분 이영표(알 힐랄)의 크로스를 받아 결승골을 만들었던 박지성은 2006년 독일월드컵 조별리그에서조차 최강 프랑스를 상대로 골을 넣었고,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는 주장 완장을 차고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골맛을 보며 무려 3개 대회 연속골의 기쁨을 맛봤다.

박지성에게는 '1호'라는 칭호가 많다. 무엇보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았고, 월드컵에서 3개 대회 연속골을 기록한 한국 선수로도 박지성이 처음이다.

남아공월드컵을 끝내고 지난달 29일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박지성은 지난 1일 자선 축구에서 사랑담으로 깜짝 변신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면서 '국민 캡틴'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월드컵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콤한 휴식으로 치유하고 있는 박지성은 3년여의 노력 끝에 공사가 마무리된 오는 24일

박지성 축구센터 24일 준공 '뿌듯' 6~12세 대상으로 유럽식 축구교육

준공식을 앞둔 '박지성 축구센터'를 바라 보면 마음이 뿌듯하기만 하다.

◇유망주 발굴이 제2의 축구인생
2011년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 은퇴를 시사해온 박지성은 오는 24일 준공식을 앞둔 '박지성 축구 센터'를 통해 JSFC(지성풋볼클럽)라는 교육 운영법인을 설립, 유럽식 축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나서 오는 9월부터 6~12세의 유소년 선

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 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유소년 축구센터를 통해 유망주를 발굴하고, 리그 휴식기에 한국을 찾아 유망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싶다는 게 박지성의 소박한 꿈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뛰어들라는 게 국내 팬들의 소망이지만 박지성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이번 월드컵을 끝내면서 "대표팀에서 내 기량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표팀은 올스타팀이 아니다. 실력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말로 자신의 의지를 대신했다.

몸 관리만 잘하면 4년 뒤에도 충분히 그라운드에서 나설 수 있겠지만 워낙 활동량이 많은 플레이 스타일인 만큼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를 지켜보면서 브라질 월드컵 출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게 박지성의 생각이다.

◇피양세는 누가 될까
최고 스포츠 스타답게 박지성의 결혼 계획도 팬들의 큰 관심거리다. 다른 스포츠 스타들과 달리 별다른 스캔들이 지내왔던 터라 팬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맨유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러내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는 험겨운 A매치 일정을 치러온 박지성은 철저한 자기 관리로 열애설(?)이 터지기 기다리는 호사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박지성은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좋은 여성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아직 결혼할 상대자를 못 만났다. 아직 솔로로 지내고 있다", "생각을 가끔 하는데 맨체스터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만날 수 없다"는 등의 얘기로 비켜나갔다.

박지성은 최근 치러진 질레트 국내 포스터 공개 촬영 행사에서도 "아직은 절박한 심정으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걸 보면 나도 할 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나의 생활 패턴도 일반인과는 달라서 이해심 많은 여성분을 기다린다"고 말했을 정도로 소박한 연애관을 내비쳤다.

한편 박지성은 이번 '박지성 축구센터' 준공식을 마치고 나서 오는 26일 소속팀인 맨유로 복귀해 자신의 여섯 번째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준비한다.

조선대 국제태권도 아카데미 열린다

18~25일 조선대체육관 ... 15개국서 수련생·동호인 200여명 참가

전라도 문화체험도

2010 조선대 국제태권도 아카데미가 오는 18일부터 8일간 조선대체육관에서 열린다. 조선대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주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독일·벨기에·미얀마·캄보디아·그리스·파키스탄·말레이시아·멕시코·네덜란드·노르웨이·캐나다·러시아·영국·스페인·남아공 등 15개국에서 태권도 수련생과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인 이번 아카데미는 태권도 종주국에서 직접 기본동작과 품새 등을 선보임으로써 태권도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를 통해 조선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각국에 태권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또 문화유적지 탐방과 산사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해 전라도 체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18일 기숙사 입소로 시작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매일 4시간씩의 훈련을 갖고 오후엔



지난해 7월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외국인 수련생들이 발차기를 하고 있다. 15개국에서 200여명의 수련생들이 참가했다.

1시간 동안 테마트레이닝 시간도 갖는다. 특히 수련생들은 22일에 안도 명사십리, 23일엔 보성낙차 발과 순천 낙안읍성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대회 폐막 하루 전인 24일에는 댄스파티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후 25일 출국한다.

이번 아카데미를 준비해 온 윤오남 조선

대 태권도학과 교수는 "세계에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선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국가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유지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선임기자 swseo@kwangju.co.kr

MLB 타격 3관왕 나올까

타격·타점·홈런 '트리플크라운' 43년만에 탄생 기대

미겔 카브레라·조시 해밀턴·조이 보토 ... 힘찬 질주

스포츠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트리플크라운'은 야구의 타자 부문에서 타율과 홈런, 타점에 서 모두 1위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타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법한 최고의 영예지만 그 영광만큼이나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130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타자는 13명뿐이고, 가장 최근에는 1967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설이었던 칼 야스트르웬스키가 3관왕에 올랐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려는 도전자가 세 명이 나와 43년 만에 타격 3관왕이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겔 카브레라, 조시 해밀턴, 조이 보토

그 주인공은 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와 조시 해밀턴(텍사스), 조이 보토(신시내티).

올스타전을 끝낸 16일(한국시각)까지 카브레라는 타율 0.346, 타점 77점으로 각각 아메리칸리그(AL) 선두를 달리고 있고, 홈런은 부문 2위(22개)다.

해밀턴은 타율에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뒤져 2위에 올라 있고 홈런은 공동 2위, 타

점은 64점으로 4위이다.

한때 잦은 음주로 '알코올 중독자'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카브레라는 올해 금주를 선언하며 심기일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밀턴은 10월까지 29경기 연속안타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감각을 뽐내고 있다.

내셔널리그(NL) 소속인 보토는 타율은 6위(0.314), 타점(60개) 공동 7위로 다소 밀리지만 홈런 공동 1위(22개)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보토는 리그 최고 스타 앨버트 푸홀스(세인트루이스)에도 밀리지 않는 활약을 펼치며 소속팀 신시내티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의 타격 3관왕 경쟁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최근 트리플크라운 주인공들의 기록을 보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야스트르웬스키는 1967년 타격 3관왕 달성 당시 전반기 타율 0.324, 19홈런, 79타점을 기록했고 후반기에는 0.329의 타율에 25홈런, 65타점을 터뜨렸다. 또 1966년 타격 3관왕 프랭크 로빈슨(볼티모어)도 예외가 아니었다.

같은 리그에서 경쟁을 펼치는 카브레라와 해밀턴은 겉으로는 트리플크라운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지만 해밀턴은 "(트리플크라운이) 좋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Table with multiple columns containing news snippets, likely a 'Sports News' or 'Sports Briefs' section. The text is too small to transcribe accurately but appears to be a grid of short articles.